

대출금리 8% 뚫리고 예금금리 하락... 금융소비자 '불만'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최대 8.12%... 1년만에 3%p ↑

예금금리 작년 말 5%서 4%대로 예대금리차 이용 '이자장사' 지적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세는 지속 예금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듯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를 돌파한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떨어져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변동금리는 5.27~8.12%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7% 후반대에서 올해 8%를 넘어선 것. 지난해 같은 기간 3.57~5.07%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금리 상단이 3.05%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대출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은 것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크



주요 시중은행 ATM기. /뉴시스

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변동형 주담대를 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았을 경우 금리가 5%에서 8.12%로 오르면, 매월 은행에 내는 원리금은 약 268만원에서 약 371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 달 이자가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하단 역시 모두 상승했다. 지난 말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62~6.22%였지만, 현재 4.76~6.53%로 올랐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신용

대출 금리 상단도 6~7%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4.0%p 가까이 급등했다. 전세대출 금리 또한 4.88~6.98로 7%가 넘었던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말 5%를 돌파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4~4.5%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WON플러

스예금' 연 4.48%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4.45% ▲신한은행 '쏟편한 정기예금' 연 4.40% ▲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 연 4.21%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 연 4.05% 등이 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8%를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이자장사'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또한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5.32%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5.53%에서 0.21%p 하락했다.

다만, 은행권은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도 예금금리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5대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시장 자금이 주요 은행에

쏠린다면,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33)는 "내 자산도 아닌 전셋집 이자가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은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최근 은행들이 금리인하책을 펼치고 있지만, 급등한 이자폭에 비해 절끔 내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데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p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금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예·적금으로 고객의 자금을 끌어올 이유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과 함께 최근 은행채 발행까지 재개되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 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수출 큰 폭 감소... 제조업 중심 경기둔화 가시화

KDI, 1월 경제동향

반도체 -29% 등 지난달 수출 -9.5% 제조업 평균 가동률 73%에 머물러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올해부터 경제가 어려워 것이라 작년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올해 첫 '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KDI는 연초부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고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무엇보다 수출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 KDI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수출의 경우 작년 12월 9.5% 감소하며 전월(-14.0%)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선박(76.1%)이 선방했지만,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29.1%), 석유화학(-23.8%)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25.5%에서 12월 -27%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전체 산업생산도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품목별로 지난해 11월 기준 반도체(-15.0%), 화학제품(-13.7%), 1차 금속(-18.6%), 전기장비(-7.8%) 등 제조업의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3.1%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재고율(127.6%)은 전월(122.8%)대비 커졌다.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제조업 연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71로 지난해(70)에 이어 낮아졌다. BSI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한 지표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도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심리지수는 89.9로 전월(86.5)에 이어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다만, 설비투자는 제조업 부진에도 11.0%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건설투자도 10.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5%대 고물가를 이어갔다.

KDI는 "수입 물가 상승 폭 축소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는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새해 첫 금통위'서 계속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기준금리 인상기조 유지 대내외 상황따라 대처

◆"금리상단, 3.75% 열어나야"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 비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들은 "2023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운용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의 경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평균금리가 10년 8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중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관건은 최종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기조 여부에 따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장기적 리스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 연준의 긴축이 반영되면서 달러강세가 나타나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한국 물가수준 또한 2%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 확신이 있어야 하는 만큼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中, 아시안게임 개최 등 투자자 모시기 나서

● 차이나 뉴스&리포트

오는 3월 하이난서 보아오 포럼 60국 이상서 2000명 이상 참석

중국이 3년 만에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아시아 게임 등 그간 미뤄왔던 국제 행사를 줄줄이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중국은 8일부터 해외발 승객에 대해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시설 격리는 완전히 없었다. 이와 함께 홍콩과 대륙 본토 사이 이동제약도 풀었다. 중국

식 '위드 코로나'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던 국경 개방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난 3년간 고집했던 '제로 코로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대기 중이었던 국제행사들도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포럼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남부 지역인 하이난에서 열린 예정이다.

포럼 주최측은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2000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



중국 남부 하이난의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는 등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에서 개최된 행사는 160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차이신에 따르면 특히 대규모 봉쇄와 이동 제한이 반복됐던 지난해의 경우 행사 개최가 292건에 불과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